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다시 대한민국! 새로운 국민의 나라

보도시점 2024.4.30.(화) 08:30 배포 2024.4.29.(월) 15:00

김주현 금융위원장, 기후기술펀드 조성 협약식 참석

- '30년까지 기업은행과 5대 시중은행(국민, 신한, 하나, 우리, 농협)의 출자를 기반으로 총 3조원 규모의 기후기술펀드를 조성하여 기후기술 분야에 투자
- 기후기술펀드는 상반기 중 모펀드를 결성하고, 내년 초까지 자펀드 결성을 완료하여 본격적으로 투자를 집행할 계획

금융위원회 김주현 위원장은 **4.30일 기후기술펀드 조성 협약식**에 참석하였다. 이번 협약식은 지난 4.17일 해상풍력 등을 포함한 신재생에너지 설비 증설에 모험자본을 공급하는 미래에너지펀드 조성 협약식에 이은 「**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방안**」(3.19일)의 **두 번째 후속조치**이다.

금융위는 **기후기술펀드**를 비롯하여 **혁신성장펀드, 성장사다리펀드**를 통해 **'30년까지 총 9조원 규모로 기후기술 분야 선점을 위해 투자**할 계획이다. 이 중 **기후기술펀드**는 **기업은행과 5대 시중은행**(국민, 신한, 하나, 우리, 농협)이 **'30년까지 출자하는 총 1.05조원**(기업은행 2,625억원, 5개 은행 각 1,575억원)으로 모펀드를 조성하여, **민간자금 매칭을 통해 총 3조원 규모로 기후기술기업에 투자**한다. 모펀드는 한국성장금융이 운용한다.

김주현 금융위원장은 "**기후기술**은 **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**이자 **미래 먹거리**"로 "**정부와 민간이 함께 기후기술펀드를 비롯하여 '30년까지 기후기술 분야에 총 9조원을 투자하는 대응방안을 마련**하였다"고 밝혔다.

특히 "기후기술펀드를 통해 투자시 **기후기술 보유 중소·벤처기업에 대한 일정 수준의 투자비율을 의무화**하여 적재적소에 자금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할 것"이라며, "**기후기술펀드가 적극적으로 투자처를 발굴해 불확실성이 크고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 어려운 기후기술 분야의 성장을 돕는 인내자본의 역할을 수행**해주길 바란다"고 당부하였다.

기후기술펀드는 상반기 중 모펀드 결성 후 자펀드 운용사 선정을 통해 **내년 초까지 자펀드 결성을 완료**하여 **본격적인 투자를 개시할 계획**이다.

별첨 : 1. 금융위원장 인사말씀
2. 기후기술펀드 운영계획

담당 부서 < 총 괄 >	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	책임자	과 장	남동우 (02-2100-2860)
		담당자	사무관	안기빈 (02-2100-2864)
< 공 동 >	중소기업은행 혁신투자부	책임자	부 장	류지훈 (02-729-7240)
		담당자	팀 장	이종섭 (02-729-6638)
< 공 동 >	국민은행 투자영업1부	책임자	부 장	이동락 (02-2073-3201)
		담당자	팀 장	이승형 (02-2073-3225)
< 공 동 >	신한은행 프로젝트금융부	책임자	부 장	배두환 (02-2151-4810)
		담당자	팀 장	박성흠 (02-2151-4189)
< 공 동 >	하나은행 중소벤처금융부	책임자	부 장	엄중걸 (02-2002-1605)
		담당자	팀 장	서자연 (02-2002-1648)
< 공 동 >	우리은행 투자금융1부	책임자	부 장	김홍익 (02-2002-4339)
		담당자	팀 장	박천주 (02-2002-3973)
< 공 동 >	농협은행 IB사업부	책임자	부 장	연성흠 (02-2080-8100)
		담당자	팀 장	김영하 (02-2080-8111)
< 공 동 >	한국성장금융 혁신금융실	책임자	실 장	장철영 (02-2090-9120)
		담당자	팀 장	김동현 (02-2090-9139)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
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
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·의원으로
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